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이' 맑음

제목 : 외할머니 덕이 갔다.

아침 8시쯤이 핸드폰 알림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열심히 준비하고 9시가 아바차를 탔다. 아바는 서울에서 광주 (전라남도) 까지 4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했다. 외할머니 덕이 가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타장밥을 가기 위해서 휴게소에 들렀다. 이럴때 휴게소는 정말 좋다. '고粱 고인돌'이라고 하는 휴게소에는 점심으로 먹기 좋은 먹거리가 있다. 2차원에서 불고기 덮밥, 다슬기해장국까지. 나는 불고기 덮밥을 먹었다. 밥과 불고기인데, 반이 야채이다. 양파, 당근 등등 난 고기타 밥만 먹었다. 대체 반! 차가 막힌다. 이럴때 하늘위로 날아서 가고 싶다. 4시간 30분을 거쳐 드디어 도착했다. 난 이파도이 사는데, 외할머니 덕은 주택이다. 양육집에서 외가 숙이다.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는 진짜 서울에 산다. 뒤에는 반이고 앞에는 논과 밭이다. 그래서 인지 정말 맑은공기를 마실수 있다. 나는 핸드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스마트폰인 심야랜드 폰으로 게임을 했다. 가끔 서울동생과 놀았다. 사실 쉬가죽이 인클메니덕이 간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나을 '과리'를 보기 위해서이다. 과림지도 많은 이벤트 미모부가 재미해주었다. 과리는 그냥 지나다니면 찾기가 어렵고 한다. 그런데, 난 그냥 지나다니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손에 있는 과리를 찾아 뛰어들었다. 나는 신나고 즐겁게 과리를 따다. 내가 제일 적을 줄 안았는데, 웬걸, 내가 엄마아빠보다 많이 따다. 그래서 난 행복으로 만족감을 생각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수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수없다.' 간혹입니다. 내가 제일 사실적이게 생각하는 속담이다. 힘들게 따고 난 먼저 서울동생과 함께 생을 내려갔다. 서울빠가 마이 스크림을 줬다 진짜 시원하긴했었다. 이렸으면 기어는 물론 지렁이까지 때려잡던 서울동생이 손톱보다 작은 개미수준인 개미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다. 7돌아해서 나는 나의 단장, 착하고 예쁜 재민이타 착하고 귀여운 다예강몽자를 했다. 너무 재밌었다. 하룻밤을 자고 난 다시 4시간을 걸쳐서 집으로 도착했다. 역시 쉬가집이 최고 안겨준다. 나에게 양육집보다 이파도가 더 편하다. 다음이 외할머니덕을 포기하겠다!